친구들과 대화하며 나의 취향과 표현방법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말하곤 했지만 이렇게 나의 시각언어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니 머릿속에 두서없이 떠오르기만 한다. 생각을 정리하면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 사진과 앨범커버 디자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

나는 사진으로 표현되는 리얼한 요소들에 흥미를 느끼고 있고, 디자인을 전공하기 전부터 사진을 찍어왔다. 주로 찍는 사진은 자연의 텍스처나 형태이다. 디자인을 전공하고서부터는 사진과 그래픽이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섞일 수 있을지, 사진과 그래픽으로 어떤 흥미로운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나의 그래픽에는 사진적 요소가 거의 항상 들어가는 편이다. 그래픽을 보면 사진이 보이지 않지만, 직접 찍은 사진을 변형시킨 것들이 숨어있다. 이번 매트릭스와 포스터에서도 내가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고요하게 걸러내다’의 점같은 요소는 사실 윤슬의 일부이고 ‘각양각색으로 걸러내다’에서는 파도를 변형시킨 것과 물 사진을 색조 조정한 것, ‘쉬엄쉬엄 흘러가다’에는 물의 사진을 중요 부분만 남겨 만든 그래픽이다. 무언가를 아날로그적인 것에서 가져오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나오는 우연함과 완벽하지 않음이 좋다. ‘쉬엄쉬엄 걸러내다’를 보면 정사각형을 스케치북에 그리고 스캔해 작업한 것이다. 이것 또한 아날로그 방법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방법은 떠오르는 것을 메모장에 곧바로 적는데, 글로 설명이 안된다면 그림을 그린다. 이후 스케치북에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해 계속 적고 꽂히는 단어를 반복해 적는다. 그런데도 떠오르지 않거나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무언가를 만들기가 어려울 때는 머리를 식힐 겸 예술작품들을 본다. 건축 잡지나 사진 잡지, 가구 디자인, 영화 포스터, 영상물, 골고루 본다. 아주 뜬금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생각해 내기 때문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고 있는 것에서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요소가 있는 지 찾아내는 것이다. 있다면 무엇이며, 이것을 뺄지 말지에 대해 고민한다. 보통 빼버리는 편이라 심플한 무언가가 나온다. 나는 이게 더 정리되어 보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 장점이 될지 결국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평소에 음악 듣는 것을 너무 사랑한다. 앨범 커버를 보면서 음악과 앨범 커버가 얼마나 어울리고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박자가 빠르고 일정하게 반복되는 테크노나 전자음악의 같은 경우 음악 특성상 앨범 커버가 완전한 그래픽적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심플하다. 선 하나를 가지고 많은 변형을 통해 패턴화된 앨범 커버가 나온다. 간단명료한 느낌이 테크노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제일 좋아하는 앨범 커버는 만프레트 아이허가 창립한 ECM Records의 앨범 커버를 제일 좋아한다. 장르는 주로 재즈와 클래식이며, ECM 레이블의 모토는 ‘침묵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이다. 그래서 그런지 앨범 커버가 심플하며 순수하고 감성적이다. 앨범 커버를 작업한 작가들의 작품은 보통 추상적이고 순수한 주제(예를들어 자연이나 마음에 대한 것)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다고 생각한다. 정돈되어 있으며 추상적인, 주제를 한 번 이상 숨겨서 표현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타입인 것 같다. 자연스럽게 타이포와 기호에도 관심이 많다. 타이포로 무언가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다거나, 포스터에 활자가 그래픽 요소로 들어가는 것에도 흥미가 있다. 제일 좋아하는 스튜디오는 SPIN 스튜디오이고 이 스튜디오에서 어떤 재료를 반복해 타입을 구성하고 직접 그린 타입을 변형하여 타입을 만들어 가는 것, 간단하면서 명료한 타입들을 잘 만들어 내는 것이 흥미롭다.

사진과 앨범커버디자인, 그리고 기호와 타이포를 다루는 일을 하고싶고 내 작업에서 이 재료들을 사용해 더 확실한 나만의 시각언어를 찾고싶다.